**UNGC 한국협회 신임회장 수락 소감**

3.5(금)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주신

남승우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 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협회 활동에 계속해서 큰 기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30여 개 이상의 국가와 7,700개의 기업과 단체가

활동 중인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국제적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유엔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면서

UNGC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역시

10대 원칙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 제고와

사회책임경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불과 2년 반 만에 회원사가 169개로 확대되는 등

사회책임의식 확산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과 투지로 ‘스피드∙기술∙예술’을 완벽하게 보여줘

세계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20조원 이상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국가 및 기업이미지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며,

글로벌 이슈 논의의 중심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상품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세계 일류상품 중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2001년 17개에서 지난해 12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선진국 10개국 국민 41.5%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고,

31.3%, 3명 중 1명이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하는 등

한국의 이미지가 무척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공기업도, 정부도, 사회단체도 모두가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 부문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또한

더 이상 뒤따르는 Follower가 아닌

이끌어가는 세계적 리더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기업을 만들자’는

비전의 틀도 새롭게 만들고, 회원사도 확장하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 봅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이 비전을 이루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세계 최고라는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고,

기탄 없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3~25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미트 회의에

동료 CEO분들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